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0**  
JULY 16 2021

**발간년월** 2021년 7월 16일 (통권 제180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 항만 처리량, 팬데믹 상황에도 소폭 하락에 그쳐
- 러, 2030년까지 항만처리량 3억 3000만t으로 증대
- 2020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최대 성장률을 기록
- 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즈, 미국시장 진출
- 사할린 주, 양식장·어류 공장 건설에 150억 루블 투자
- 러 로스토프 항구, 새로운 곡물 터미널 본격 가동 시작
- 칼리닌그라드-페테르부르크 자율운항선 2023년 운항

## 주요 통계

-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주요 동향



## 러 항만 처리량, 팬데믹 상황에도 소폭 하락에 그쳐

그림. 러시아 항만 생산성 변화



자료: <http://www.morvesti.ru/obzor/1715/90264/>

### ■ 팬데믹 상황에도, 러시아 항만의 화물처리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 2019년 러시아 항만의 화물 처리량은 8억 4,000만 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8억 2,100만 톤으로 감소했음
-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화물은 곡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늘었고(5,030만 톤), 광물은 47.8% 증가(1,320만 톤)했음
- 가장 감소세가 뚜렷한 화물은 석유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처리량은 14.9%나 감소했음

그림. 러시아 항만 생산성 변화



자료: <http://www.morvesti.ru/obzor/1715/90264/>

■ 러시아 해역 중 화물 처리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발트해였다.

- 발트해 해역 항만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고, 그 중 프리모르스크와 브소츠크 항만 처리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음. 우스트 루가 항만의 경우, 석유가공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조프 흑해지역 항만의 경우는 2% 감소했음. 단, 타만 항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해 2,200만 톤을 기록했음
- 러시아 해양선박건조 중앙연구소(CNIM)는 최근 들어 항만과 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 항만의 생산성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음

그림. 러시아 항만 생산성 변화



자료: <http://www.morvesti.ru/obzor/1715/90264/>

## ■ 러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모두 1,423척(러 국적선 1,176척)이다.

- CNIIM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체 선박 가운데, 러시아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비율(Deadweight 기준)은 1.2%이며, 척수 기준으로는 2.6%로 나타났음
- 러시아 전체 선박 중 화물선은 85%, 운항 지원선은 7%, 어선 7%, 연구선은 1%를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러시아 선박은 총 1,176척, 외국 선박은 247척임
- 이 가운데, 해운용 선박은 300척, 여객용은 48척, 내륙수로-해운용 선박은 총 846척으로 집계되었음
- 러시아 10대 선사는 소브콤플롯(Sovkomflot), 볼가(Volga), 노르드(Nord), 북서 해운사, 로스네프테플롯(Rosnefteflot), 가스프로네프츠 쉬핑, 노보그레인(Novogrein), 볼가 해운사, 팔말리(Palmali), 폴라 라이즈(Pola Raiz)임

## ■ 업계에서 러시아와 외국선박의 선령 제한조치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 선령 제한 조치는 해운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박의 기능을 보장하고, 선박 수리업체 및 조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
- 반면, 선령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음. 신규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인상, 경유에 대한 소비세 면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수산협회 회장은 현재 러시아 조선소 및 수리업체의 상황으로는 기존 선박을 현대화하거나 최신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했음

## ■ 러시아에서는 선박 건조 분야의 수입대체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 러시아 정부는 2015년 7월 17일에 제정한 'No. 719 법령'을 개정하여 조선 산업의 국산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령 기준에 따라 러시아 건조 선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생산품을 결정하고, 높은 수준으로 국산화를 달성한 조선소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외국산 부품을 조선소에서 조립한 경우에도 러시아 건조 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즈베즈다 조선소가 건조할 수 있는 가스운반선과 대용량 유조선은 예외 사항으로

명시했는데, 이 조항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는 ‘보스톡 오일’ 프로젝트용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obzor/1715/90264/>(2021.7.13. 검색)

## 러, 2030년까지 항만 처리량 3억 3,000만톤으로 증대

### ■ 해양하천운송청, 화물처리량 3억 3,000만 톤 증대 계획<sup>a)</sup>

- 자하리 지오예프 러시아 해양하천운송청(Rosmorrechflot) 부청장은 최근 한 ‘항만 인프라 포럼’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러시아의 항만 처리량은 3억 3000만 톤 증가할 계획이라고 발언하면서, 특히 △북서해역 항만, △아조프-흑해 및 불가-카스피해 유역 항만, △북극권 항만, △극동해역 항만에 항만 개발 프로젝트가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 북서해역 항만 처리량 약 1억 2,950만 톤 규모로 확대

- 2030년 말까지 북서해역에 위치한 항만의 경우 약 1억 2,950만 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기본 골격이 되는 사업은 전체 화물 처리량 이 5,480만 톤으로 늘어나는 우스트-루가(Ust-Luga)항 개발 프로젝트임
- 또한, 노보트란스 악티프(Novotrans Aktiv) 유한책임회사는 곡물, 석탄 및 기타 일반 화물 환적 물량 2,430만 톤 처리가 가능한 범용 터미널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 울트라마르(Ultramar) 유한책임회사는 우스트-루가항 북쪽 지역에 비료 화물 선적을 위한 1,200만 톤 규모의 터미널 건설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2500만 톤까지 터미널 화물 처리량을 늘린다는 계획임
- 에브로힘 우스트-루가 터미널(Evrohim Ust-Luga terminal) 유한책임회사는 같은 지역에 5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비료 환적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업은 발트해 연안에 있는 항만에서 러시아 연방 내 항만으로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건설되는 것임
- 우스트-루가항 개발 외에도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주에 위치한 피오네르스키(Pionierskij)시 국제화물·여객항 건설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30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최대 25만 명의 여객들을 수용하고, 선박 화물을 최대 300만 톤까지 처리하는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 아조프-흑해 항만 화물처리량 최대 6,240만 톤까지 늘려

-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아조프-흑해 및 불가-카스피해 지역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은 타만(Taman),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타만(Taman) 항에는 오테코(Oteko) 그룹이 2,500만 톤 규모의 산적화물 터미널 2단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에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 노보로스스크(Novorossiisk) 항구에는 2021년 4분기에 완공을 목표로 곡물 터미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이 곳의 화물 처리량은 15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 화물 늘어나는 북극권 항만 개발 프로젝트 또한 추진

- 북극권 항만의 추가 개발은 인접국가의 항만에서 러시아 국내 항만으로 러시아 화물의 유입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고, 러시아의 수출 잠재력 확대와도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물동량 증가 계획과도 관련되어 있어 중요도가 높은 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 북극권 해역의 항만 화물 처리량 증가치는 2030년까지 3,360만 톤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들로는 콜라 만(Kola bay)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무르만스크(Murmansk) 항만에 1,800만 톤의 석탄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라브나(Lavna) 석탄 터미널 건설과 노바텍(Novatek)이 건설하는, 1,04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무르만스크 주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 환적 단지(제1 단지) 건설사업이 있음<sup>b)</sup>
- 무르만스크 무역항만 유한책임회사는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모르포트(Rosmorport)와 합작으로 화물을 선적하고 내리는 지역의 제1, 2, 3번 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착수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면, 석탄 및 비료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의 능력은 400만 톤 가량 증가됨
- 이 외에도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인프라) 프로젝트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인데, 이 같은 프로젝트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외곽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이 사업에는 북부 지역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페벡(Pevek) 항만의 부두 재건축 작업 및 아나디르(Anadyr) 항만의 7번 부두 재개발, 나리안-마르(Naryan-Mar) 항만 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극동 항만도 2030년 말까지 1억 450만 톤으로 키워

- 극동지역 항만 인프라 개발 조치는 기존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태평양 지역으로 석탄 화물 수출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이 지역에서는 2020년 9월에 착공된 무치카(Muchika) 만의 2,400만 톤의 수용량을 갖춘 석탄 환적 특화 단지 건설, 수호돌(Sukhodol) 만에 설치 중인 1,200만 톤의 생산량을 갖춘

수호돌(Sukhodol) 항만 유한책임회사의 석탄 터미널 건설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sup>c)</sup>

- 또한 캄차카 지역 베체빈스카야(Bechevinskaya) 만에 연간 2,17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LNG 환적 해상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무르만스크 LNG 터미널과 함께 사베타 항(Sabetta)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 LNG 플랜트에서 공급되는 천연가스(야말반도 생산 가스)를 임시로 저장하고, 수출하기 위한 주요 LNG 허브를 건설하는 사업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90543/>(2021.7.13. 검색)
- b) 석탄 터미널을 따라 건설 및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이 진행 중임
- c) 수호돌 항구 석탄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는 현재 해안가·해상 시설 건설 및 설비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20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최대 성장률을 기록

그림. 2020년 기준 상위 20개 러시아 전자상거래 사이트

		Online sales volume in million rubles		Number of orders In thousands		Average order value in rubles		
		2020	y-o-y	2020	y-o-y	2020	y-o-y	
1	Wildberries.ru	General online store	413 200	96%	305 000	100%	1 350	-2%
2	Ozon.ru	General online store	197 000	144%	73 800	133%	2 670	5%
3	Citilink.ru	Electronics & household	132 730	47%	12 390	23%	10 710	19%
4	Dns-shop.ru	Electronics & household	116 760	117%	12 370	82%	9 440	20%
5	Mvideo.ru	Electronics & household	113 200	100%	8 900	71%	12 720	17%
6	Eldorado.ru	Electronics & household	53 760	95%	6 400	80%	8 400	8%
7	Lamoda.ru	Fashion & accessories	52 970	32%	14 550	28%	3 640	4%
8	Apteka.ru	Online pharmacy	50 070	46%	32 240	48%	1 550	-2%
9	Aliexpress.ru	General online store	49 000	171%	19 060	218%	2 570	-15%
10	Yandex Market	General online store	44 090	136%	15 490	159%	2 850	-9%
11	Petrovich.ru	DIY, items for the home	44 010	50%	3 820	119%	11 520	-32%
12	Vseinstrumenti.ru	DIY, items for the home	42 520	58%	7 830	106%	5 430	-23%
13	Ikea.	DIY, items for the home	40 800	175%	2 550	240%	16 000	-19%
14	Detmir.ru	Children's goods	38 700	142%	24 300	136%	1 590	3%
15	Leroymerlin	DIY, items for the home	37 780	217%	4 460	254%	8 470	-10%
16	Sima-land.ru	General online store	37 400	62%	4 280	63%	8 740	-1%
17	Svyaznoy.ru	Electronics & household	23 650	18%	1 840	4%	12 850	12%
18	Onlinetrade.ru	General online store	23 050	22%	3 560	0%	6 470	22%
19	Sportmaster.ru	Sports & leisure	20 110	55%	6 370	74%	3 160	-11%
20	Shop.mts.ru	Electronics & household	19 550	106%	1 070	81%	18 270	14%

자료: <https://www.ewdn.com/2021/05/28/in-2020-russia-recorded-one-of-the-worlds-highest-e-commerce-growth-rates/>

## ■ 2020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국내 거래 규모는 약 2.7조 루블

- 'Data Insight' 연구소의 2020 러시아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거래 시장 규모는 약 2조 7,000억 루블(당시 달러 환율 기준 약 37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58%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되었음
- 몇몇 부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패턴이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며, 기존기업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 온라인 쇼핑 부분은 2019년 대비 250% 급속 성장세 시현

- 가장 극적인 성장을 이룬 부문의 하나는 온라인 장보기이며, 거래량이 130억 루블(약 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2019년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음

- 이에 따라, X5 Retail Group이 금전 가치(GMV) 기준으로 전년 대비 347%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여 식품 유통 시장에서 가장 큰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했음
- 와일드베리즈(Wildberries)<sup>a)</sup>는 4,000억 루블(약 57억 달러)의 판매 수익을 기록하며 시장 1위를 차지함
- 이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나 순수익은 21억 루블(약 2천 9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2020년은 오존(Ozon)사(社)가 러시아 온라인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한 해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2019년 대비 144% 수익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2위를 차지하였음
- 오존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 3월 사전 IPO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예상 수익 규모(5억 달러) 보다 높은 1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림
- 전자기기를 주로 판매하는 씨티링크(Citilink)의 경우, 2019년 시장 2위에서 2020년 3위로 하락했음에도 2019년 대비 47%의 수익 성장률을 보였음
-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메를리온 그룹(Merlion Group)은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와 플랫폼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 인사이트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미국 대형 유통사인 아마존(Amazon)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미·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미미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김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이수민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 참고자료

a) 반면 2017년에는 4위, 2018년과 2019년에는 3위였음

b) <https://www.ewdn.com/2021/05/28/in-2020-russia-recorded-one-of-the-worlds-highest-e-commerce-growth-rates/>(2021.7.12. 검색)

# 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즈, 미국시장 진출

그림. 와일드베리즈 매장



자료: <https://www.themoscowtimes.com/2021/04/12/russias-top-online-retailer-targets-us-market-a73562>

## ■ 미국에 웹 플랫폼과 어플 출시, 4만 개 브랜드와 550만 개 상품 판매 예정

-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즈(Wildberries)<sup>a)</sup>가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판매를 개시한 데 이어 2021년 초에 서유럽에 진출한 후 그 후속 사업으로 미국시장까지 진출하였음
- 와일드베리즈 사(社)는 미국판 웹사이트와 어플(러시아어, 영어 사용 가능)을 출시했고, 4만 개 브랜드의 550만 개 상품이 게시될 예정임
- 이 회사가 지난해 해외에서 거둔 판매 수익은 237억 루블(3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해외 수익이 거의 두 배 수준이고, 러시아 국내 판매 수익은 4,300억 루블(54억 달러)이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기업 오존(Ozon)의 국내 수익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임
- 전문가들은 와일드베리즈의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로 아마존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같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패턴이 온라인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임
- 다만, 그럼에도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3달러 중 1달러(30%)가

아마존의 수익일 정도로 여전히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높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이수민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

#### 참고자료

- a) 와일즈베리즈 사(社)는 옷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며,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한 기업임
- b) <https://www.themoscowtimes.com/2021/04/12/russias-top-online-retailer-targets-us-market-a73562>(2021.7.12. 검색)

# 사할린 주, 양식장·어류 공장 건설에 150억 루블 투자

## ■ 사할린 주지사, 어업단지 등에 150억 루블 투자 ... 어업 인프라 개선 추진<sup>a)</sup>

- 발레리 리마렌코(Valerie Limarenko)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주 의회에서 사할린 주 어업 종합 단지에 총 150억 루블 이상의 투자금이 투입된 1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주지사에 따르면, 1일 약 1,300톤의 신선 생선을 완전히 가공처리 할 수 있는 공장과 1회 최대 1만 톤의 냉동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창고가 남 쿠릴 지역에 건설될 예정임
- 또한 남 쿠릴에는 어분 및 어유 생산장과 두 곳의 연어 양식장 건설 및 기타 사업들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사할린 남쪽 지방의 부세에도 가두리 양식장이 건설되어 이 지역 어업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 참고자료

- a)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bolee\\_15\\_mlrd\\_rublej\\_vlozhat\\_v\\_stroitelstvo\\_rybovo\\_dnyh\\_zavodov\\_i\\_zavodov\\_po\\_pererabotke\\_ryby\\_v\\_sahalinskoy\\_oblasti.html](https://www.korabel.ru/news/comments/bolee_15_mlrd_rublej_vlozhat_v_stroitelstvo_rybovo_dnyh_zavodov_i_zavodov_po_pererabotke_ryby_v_sahalinskoy_oblasti.html)(2021.7.8. 검색)

# 러 로스토프 항구, 새로운 곡물 터미널 본격 가동 시작

## ■ 연간 1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러시아 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곡물 터미널

- 빅토르 보브크(Victor Vovk) 로스토프 부주지사는 러시아 언론사 타스(Tass)에 로스토프 항만에 위치한 곡물 터미널은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터미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 터미널 건설로 곡물 처리량을 증대되고, 돈(Don) 지역의 수출 잠재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2021년 5개월 동안 로스토프 주 항만의 곡물 취급량은 450만 톤이었으며, 2020년 결산에 따르면 약 1,700만 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로스토프 지역은 러시아 국내 최대 곡물 수확 기록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음
- 또한 러시아 식량 수출 규모에서 로스토프 주는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결산에 따르면, 로스토프 주 항만 처리량은 곡물 화물 1,950만 톤을 포함하여 약 4,250만 톤에 이르렀으나, 새로운 터미널 건설로 곡물 환적 처리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곡물 터미널 운영으로 6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이날 인터뷰에서 부주지사는 로스토프 주가 국가 농산물 수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터미널은 곡물 수송량을 늘리고, 로스토프 지역이 지닌 농산물 부문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90390/\(2021.7.8. 검색\)](http://www.morvesti.ru/news/1679/90390/(2021.7.8. 검색))

# 칼리닌그라드-페테르부르크 자율운항선 2023년 운항

## ■ 선박 운영비 30% 정도 절감 및 선원 감축 불가피<sup>a)</sup>

- 키릴 보그다노프(Kirill Bogdanov) 러시아 연방 교통부 차관은 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2022~2023년까지 칼리닌그라드-페테르부르크(우스트루가) 사이 자율항행 선박 출항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약 2배 규모의 승무원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 차관은 칼리닌그라드 지역은 자율운항 선박 시범지역으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주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며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함
- 해운회사들은 자율 운항 선박을 통해 선박 운영비의 15~3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인 운송 규제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음

## ■ 가을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 자율함대 운항자격 취득<sup>b)</sup>

- 지난 5월, “카스피 2021: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Ways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과학 포럼에서 2021년 가을 러시아 무인 정찰선이 세계 최초로 해상 자율함대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러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술구상(NTI) 사업 부문에서 해양산업의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렉산더 핀스키(Alexander Pinsky) 마리넷(MariNet) 산업센터 총괄국장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 자율함대의 자격을 얻기 위해 기술적·법적 사항을 구축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무인 해양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밝혔음
- 바실리 구술랴크(Vasily Gutsulyak) 러시아 교통대학 해양법 법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2020년 12월 자율·반자율 상업 운항 선박 개념을 도입한 규정이 채택됐으며,
- 자율 선박을 원격 조정을 하는 외부 승무원 개념이 포함된 연방법 초안이 준비되어 러시아 연방의 국가두마(Dum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현재 자율 선박의 시범 운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자율 선박 운항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자동 예인선 6척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

#### 참고자료

- a) <https://kgd.ru/news/economy/item/95415-bespilotnye-suda-mezhdu-kaliningradom-i-peterburgom-planiruyut-zapustit-k-2023-godu> (2021.7.7. 검색)
- b) <https://rg.ru/2021/06/12/reg-ufo/bespilotnye-suda-v-rossii-smogut-poluchat-status-avtonomnyh-uzhe-oseniu.html> (2021.7.7.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03 (+9.3%)**	6.25 (-5.4%)	19.28	+3.9%
북극해	2.42 (+0.7%)	5.16 (-2.7%)	7.58	-1.7%
발트해	10.18 (+6.4%)	11.02 (-10.7%)	21.2	-3.4%
아조프-흑해	9.64 (+11.3%)	13.24 (-3.6%)	22.88	+2.2%
카스피해	0.2 (-30.2%)	0.41 (+1.4%)	0.61	-12.2%
합계	35.43 (+8.0%)	36.12 (-6.0%)	71.55	+0.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흘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스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72,874.7	80,039.2	220.6	38.8	273,095.3	80,077.9
25-27	광물 제품	1,243,473.0	33,684.1	347.6	0	1,243,820.7	33,684.1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04,647.2	33,139.7	339.7	0	1,104,986.9	33,13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970.9	90,992.8	324.9	21.7	4,295.8	91,014.5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21.3	1,727.1	0	1.5	21.3	1,728.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6,348.1	9,165.0	265.5	0	96,613.7	9,165.0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247.7	27,324.9	0.3	37.5	248.1	27,362.5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2,071.0	82,510.9	97.0	929.2	52,168	83,440.1
84-90	기계류	73,280.6	421,700.6	116.7	50.1	73,397.3	421,840.7
68-71, 91-97	기타	201,712.5	54,468.0	769.6	80.7	202,482.3	54,548.7
	합계	1,944,000.0	801,702.4	2,142.3	1,159.5	1,946,142.2	802,861.9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190	218.7	-	-	-	-	-	-	190	218.7	-	-
0303	냉동수산물	73,852.9	99,954.5	1,698	5,144.4	0	0.0	-	-	73,853.0	99,954.5	1,698	5,144.4
03031	연어	0	7.2	-	-	0	0.0	-	-	0.0	7.2	-	-
030331	광어	257	855.4	-	-	-	-	-	-	257	855.4	-	-
030332	가자미	156	171.9	-	-	-	-	-	-	156	171.9	-	-
030339	기타 넙치류	788	648.8	-	-	-	-	-	-	788	648.8	-	-
030351	청어	5,139	3,472.4	-	-	0	0.0	-	-	5,139	3,472.4	-	-
030363	대구	5,379	12,000.8	-	-	-	-	-	-	5,379	12,000.8	-	-
03036 70000	명태	55,038	58,037.4	-	-	0	0.0	-	-	55,038	58,037.4	-	-
03038 93	농어	13	38.1	-	-	-	-	-	-	13	38.1	-	-
030391	알류	4,536	22,621.9	-	-	0	0.0	-	-	4,536.5	22,62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96	402.6	-	-	-	-	-	-	296	402.6	-	-
0304	생선 필레	7,182	21,605.6	82	420.9	0	0.0	-	-	7,182	21,605.6	82	420.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	0.1	104	669.4	-	-	-	-	0.0	0.1	104	669.4
0306	갑각류	5,599	134,574.5	57	389.2	-	-	-	-	5,599	134,574.5	57	389.2
030614, 030633, 030693	계	5,145	130,487.3	-	-	-	-	-	-	5,145.0	130,487.3	-	-
0307	조개류	498	1,254	-	-	0	0.0	-	-	499	1,254	-	-
03072	가리비	201	432.6	-	-	-	-	-	-	201	432.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19	355.3	61	300.6	0	0.0	-	-	119	355.3	61	300.6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747	2,437.3	-	-	-	-	-	-	747	2,437.3	-	-
03081	해삼	16	43.1	-	-	-	-	-	-	16	43.1	-	-
03082	성게	731	2,392.0	-	-	-	-	-	-	731.0	2,392.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